

# 청소년 금연도시 구축 방안

문명순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 I. 들어가는 말

천안시는 1998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였고 금연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금연분위기 조성, 금연 환경 구축, 흡연예방교육, 금연실천지원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낮아졌고 금연법규실천 등 시민 건강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보건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금연사업의 확대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2008년 청소년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금연도시를 선포하고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청소년 흡연 실태와 청소년 금연도시 사업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청소년 금연도시 사업 운영

### □ 사업개요

- 사업비 : 159백만원(시비)
- 내용 : 지역사회협의체구성,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 연구, 청소년 금연모범도시 선포식 및 협약식, 청소년 금연환경 조성,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등

### □ 그 동안 추진상황

- 보건교사 대상 금연지도자 교육(2주간)
- 지역사회 실무자 간담회 : 교육청등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실무자 등 25명
- 청소년 금연모범도시 협의체 구성 및 위촉장 수여(인원 17명)
-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 연구 위탁 : 관내 초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중 무작위 층화(2,000명)
- 청소년 금연모범도시 선포식
-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 협약식

□ 앞으로 추진계획

○ 금연 스쿨 존 신청학교 대상 사업 추진

-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운영(자원봉사자 활용)
- 흡연예방교육, 금연 상징물 등 홍보물 설치, 금연 홍보 자료 지원 등
- 학교 금연 강화를 위한 일산화탄소(CO) 측정기 지원
- 금연지도자 육성, 활용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강화
- 학교장, 학부모, 학생부장등 교사, 학생 등 금연교육전문가 개발

○ 청소년 흡연예방지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자원봉사(30명)

○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실천 지원 ----- 50개소/15,000명

: 금연운동협의회 니코프리 프로그램 지원 예정

○ 금연테마공원 조성 : 1개소 (30,000천원)

Ⅲ 2008년 천안지역 청소년 흡연을 및 관련 요인 - 단국대학교 가정의학과 정유석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전국적인 금연열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조기 흡연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시절의 흡연은 성인이 되어서 시작하는 경우보다 그 해악이 2-3배나 강하며, 한번 흡연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들의 일생동안 흡연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천안시 관내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 흡연을 및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미래의 지역사회 주인인 청소년들의 흡연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천안시 전체의 초, 중, 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도심 및 농촌지역, 성별, 학년별로 층화하여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표본층화추출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0개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각각 8개씩을 선정하였고 각 학교마다 학년당 1학급씩 무작위로 선별하였다.(남학생 1,388명, 여학생 1,216명, 총 2,604명) 설문은 2008년 4월 한달동안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현 흡연 유무 및 흡연경험 여부, 음주, 학업스트레스 등 관련요인, 간접흡연에 관한 견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3. 연구 결과

1) 관내 남학생들 중 일주일에 한 대 이상씩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는 학생의 비

율은 중 1 4.5%, 중 2 3.1%, 중 3 5.6%, 고 1 18.7%, 고 2 21.8%, 고 3 26.4%로 전체 남학생중 11.1%가 흡연자였다(중고생흡연율은 15.2%). 여학생중에서는 중 1 0.9%, 중 2 1.7%, 중 3 2.2%, 고 1 7.6%, 고 2 13.6%, 고 3 6.1%의 분포를 보여 전체 여학생중 4.2%가 흡연자였다(중고생 흡연율은 6.0%). 초등학교생중에서는 5학년 남학생 중 1명(0.05%)만이 규칙적으로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2)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7.6%, 6학년 7.1%, 중 1 22.0%, 중 2 31.8%, 중 3 40.5%, 고 1 39.6%, 고 2 39.7%, 고 3 42.3%로 전체 남학생 중 28.8%(중고등학생중 36.9%)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0.5%, 6학년 1.9%, 중 1 9.4%, 중 2 16.8%, 중 3 10.8%, 고 1 20.8%, 고 2 26.0%, 고 3 18.9%로 전체 여학생 중 12.9%(중고등학생중 17.9%)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학생들의 첫 흡연 경험 시기는 유치원 6.4%, 초등 1학년 7.2%, 초등 2학년 1.5%, 초등 3학년 5.9%, 초등 4학년 5.4%, 초등 5학년 5.4%, 초등 6학년 12.1%, 중 1 15.2%, 중 2 19.3%, 중 3 12.3%, 고 1 6.4%, 고 2 2.6%, 고 3 0.3%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첫 흡연 경험 시기는 유치원 2.6%, 초등 1학년 2.6%, 초등 2학년 2.0%, 초등 3학년 0.7%, 초등 4학년 1.3%, 초등 5학년 8.5%, 초등 6학년 13.7%, 중 1 20.3%, 중 2 22.2%, 중 3 18.3%, 고 1 5.2%, 고 2 1.3%, 고 3 1.3%로 나타났다.

4) 담배를 처음 피운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집이 16.7%, 학교가 15.9%, 등하교길 15.4%, 친구집이 11.6%, 노래방 4.9%, 학원 3.9%의 순이었다. 여학생은 친구집이 16.9%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집과 학교가 각각 16.2%, 노래방 9.7%, 등하교길 8.4%, 학원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첫 흡연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남학생의 경우는 단순호기심이 60.8%, 친구 및 선배의 권유 21.6%, 스트레스때문 7.0%, 멋있어 보여서 5.2% 등의 순으로 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단순호기심 67.8%, 친구 및 선배의 권유 18.4%, 스트레스때문 11.2%, 살을 빼려고 0.7%의 순이었다.

6)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는 부모님이 흡연자인 경우, 특히 모친이 흡연하는 학생들의 흡연율이 의미있게 높았으며, 술을 마셔보았거나 자주 마시는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았다.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흡연율 및 흡연경험율에서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토의사항

2001년도 정유석 등이 천안 지역 청소년 흡연율을 임의 추출(중학교 5개, 고등학교 6개, 7,373명)해서 조사한 자료와 비교하면 흡연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남학생 흡연율은 18%, 여학생 흡연율은 8.8%였으며 중학생은 4.3%, 고등학생은 21.1%였다. 본 조사에서 2008년도 천안지역의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0%(남학생 15.2%, 여학생 6.0%, 중학생 3.1%, 고등학생 16.4%)로 2001년보다 남녀 학생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2007년 전국 통계인 11.6%보다 약간 낮게 나온 셈이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발표한 2007년 전국 청소년 흡연율과 비교하면 중학생 흡연율은 낮은 반면, 고등학생 흡연율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IV 맺음말

천안시 청소년 금연도시 선포의 의미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금연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그 동안 청소년 흡연문제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실정이었고 다소 형식적이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08년 교육청과 공동 협약을 통한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되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흡연 하지 않도록 하며 흡연 학생의 건강 회복을 돕는 등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청소년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금연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